Symphony No. 8 in B minor, D. 759 "Unfinished"

- □□

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8 in B minor, D. 759 "Unfinished"
작곡가: Franz Schubert (1797–1828)
작곡 시기: 1822년 늦여름에 구상했으며 , 자필 정서총보는 1822년 10월 30일 무렵 쓰기 시작했다. 초연: 1865년 12월 17일 Vienna Hofburg의 Großer Redoutensaal. Johann Herbeck 지휘.
성격: 완성된 두 악장과 제 3악장 Scherzo의 단편이 남은 교향곡이다 . 일반 공연은 Allegro moderato 와 Andante con moto 두 악장으로 이루어진다 .

IMSLP: Symphony No.8, D.759 (Schubert, Franz)

Wikipedia: Symphony No. 8 (Schubert)

Franz Schubert의 Symphony No. 8 in B minor, D. 759 "Unfinished"는 두 악장이 완성된 관현악 총보로 전하는 미완성 교향곡이다 . 이 글은 일반 연주에서 사용하는 두 악장판을 기준으로 하며, 뒤이어 남은 Scherzo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만든 후대 보완판을 별도로 설명한다. 제 1악장 Allegro moderato 는 B minor, 제 2악장 Andante con moto 는 E major이고, 두 악장 뒤에 Schubert가 완성한 피날레는 남아 있지 않다.

출판 정보와 자료

Werner Aderhold가 편집한 Neue Schubert-Ausgabe V/3은 D 759의 현존 자료를 두 완성 악장과 제 3악장 단편으로 구분한다. 이 비평판은 1997년 Bärenreiter에서 BA 5542로 출판되었고 , 본편에 두 악장을, 부록에 Scherzo 단편과 Particellentwurf를 수록한다. 이 글은 이 판본의 악보 본문을 옮긴 Bärenreiter 연구용 총보 TP 407을 기준으로 삼는다.

Aderhold의 판본 서문에 따르면 Schubert는 1822년 늦여름에 작품을 구상했고, 표지의 날짜로 보아 10월 30일 무렵 정서총보를 쓰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날짜는 교향곡 전체의 완성일을 뜻하지 않는다. 제 1·2악장은 완전한 총보로 남았지만, Scherzo는 첫 9마디만 전 악기가 기보되어 있고 일부 성부가 20마디까지 이어진다. 별도의 Particell에는 Scherzo와 Trio의 더 긴 구상이 남아 있으나 공연 가능한 완성 악장은 아니다. 자필
총보가 파트 제작과 최종 교정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대목의 아티큘레이션이 성부마다 다른 곳도 있으며, Neue Schubert-Ausgabe는 근거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이를 통일했다.

Schubert가 1823년 Steiermärkischer Musikverein의 명예회원이 된 뒤 교향곡 총보를 보내겠다고 알린 사실은 남아 있다. 그러나 D 759가 정확히 언제 어떤 경로로 Anselm Hüttenbrenner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Hüttenbrenner가 수십 년 동안 보관한 총보는 Johann Herbeck이 그에게 접촉하면서 공개되었고 , Herbeck은 1865년 12월 17일 Gesellschaft der Musikfreunde 연주회에서 두 악장을 초연했다 . 당시에는 Schubert의 Symphony No. 3 피날레를 뒤에 덧붙였지만 , 이는 D 759의 제 4악장이 아니라 그날 프로그램의 대용 종결이었다 .

C. A. Spina는 1867년 Vienna에서 Zwei Sätze der unvollendeten Sinfonie in H moll 이라는 제목으로
총보와 파트를 출판했다. 같은 해 Carl Reinecke의 피아노 2손 ·4손 편곡도 나왔다. 전통적인 영어권 ·국제 공연 관행은 D 759를 Symphony No. 8로 부르지만, Neue Schubert-Ausgabe는 이를 Symphony No. 7로 편성한다. 두 번호가 함께 쓰이므로 조성, 별칭과 함께 Deutsch 작품 목록 번호 D 759 를 확인해야 한다.

소요 시간

표준 두 악장판은 약 22–25분이다. Bärenreiter와 Berliner Philharmoniker는 약 22분, Cleveland Orchestra와 IMSLP는 약 25분으로 제시한다. 템포와 반복 처리에 따라 실제 시간은 더 달라질 수 있다.

I. Allegro moderato: 약 11–15분
II. Andante con moto: 약 10–13분

Edward Gardner와 City of Birmingham Symphony Orchestra의 Chandos 녹음은 13분 31초와 10분 45 초, 합계 24분 22초다. Scherzo나 추정 피날레를 더한 보완판의 시간은 이 두 악장판과 구분해야 한다.

편성

목관: 2 flutes, 2 oboes, 2 clarinets, 2 bassoons
금관: 2 horns, 2 trumpets, 3 trombones
타악기: timpani
현악: strings

이 편성은 Neue Schubert-Ausgabe 계열 총보, Cleveland Orchestra와 IMSLP의 작품 정보에서 일치한다. Scherzo 보완판의 악기 배치와 세부 성부에는 편집자가 Schubert의 Particell을 관현악화하면서 내린 판단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두 완성 악장과 같은 수준의 작곡가 확정 자료로 볼 수는 없다.

악장별 구성

I. Allegro moderato — B minor

제 1악장은 낮은 현악의 선율로 시작하고, 바이올린의 여린 움직임 위에서 oboe와 clarinet이 첫 주제군을 이끈다. 이어지는 G major 주제는 첼로에서 시작한다. Phillip Huscher의 Chicago Symphony Orchestra 해설은 이 두 번째 주제 뒤의 중단과 관현악의 강한 응답을, 노래하는 선율과 극적 전환이 맞닿는 지점으로 설명한다. 제시부의 서로 다른 성격은 발전부와 재현부에서 다시 다뤄지며 악장은 B minor로 끝난다.

1865년 초연을 평한 Eduard Hanslick은 이 악장의 선율 흐름과 관현악의 투명성을 먼저 들었다. 이는 오늘날 자주 강조되는 어둡고 무거운 해석만이 초연 직후부터 고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같은
악보에서도 템포, 현악 규모와 아티큘레이션에 따라 선율의 연속성과 관현악의 중량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두드러지는지가 달라진다.

II. Andante con moto — E major

제 2악장은 E major이며 Andante con moto 로 표시된다. 현악이 제시하는 시작과 목관 독주가 이어지고, trumpets·trombones·timpani가 참여하는 강한 단락이 대비를 만든다. Cleveland Orchestra의 Peter Laki 는 이 악장이 서로 다른 성격의 단락을 거쳐 E major를 다시 확립한다고 설명한다. 악장은 독립된 종지로 끝나며, 일반 두 악장판에서는 이 지점이 공연 전체의 끝이다.

두 악장의 빠르기말은 모두 움직임을 요구한다. Harnoncourt처럼 제 1악장과 제 2악장을 매우 느리게 잡아 큰 호흡으로 연결하는 선택도 있고, Abbado처럼 더 짧은 호흡과 실내 관현악 규모를 택하는 녹음도 있다. 이 차이는 미완성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도 두 악장판의 전체 길이와 형식 감각을 크게 바꾼다.

남은 Scherzo와 후대 공연판
Schubert는 제 3악장 Scherzo를 B minor로 시작했다. 자필 총보에서 완전히 관현악화된 범위는 첫 9 마디이며, 일부 성부는 20마디까지 남는다. 별도 Particell은 Scherzo를 더 길게 전개하고 G major Trio의 시작까지 적지만, Trio와 악장 전체는 완성되지 않았다. 제 4악장을 위한 자필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Brian Newbould를 비롯한 편집자들은 Particell을 관현악화하고 빠진 Trio를 보완해 Scherzo의 공연판을 만들었다. 일부 보완판은 Schubert가 곧이어 쓴 Rosamunde, D 797의 B minor Entr'acte를 추정 피날레로 붙인다. 이 곡이 D 759와 조성 ·편성 ·형식에서 관련된다는 점은 가설의 근거지만, 원래 제 4악장이었다고
입증하는 자필 자료는 없다. Newbould 자신도 보완 과정에서 악기 배치와 음정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따라서 세 악장 또는 네 악장 보완판은 Schubert가 남긴 유일한 완성본이 아니라, 단편을 연주 가능한 형태로 제시한 후대 판본이다.

두 악장판의 연주와 녹음

Nikolaus Harnoncourt는 2015년 Berliner Philharmoniker 전집의 인터뷰에서 제 2악장 뒤에 다른 음악을 잇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 작품을 연주회 마지막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Berliner Philharmoniker와 2003–2006년에 녹음한 연주도 두 악장을 매우 느린 템포로 묶는다. Andrew Clements는 The Guardian의 음반평에서 Harnoncourt의 제 1악장이 Claudio Abbado의 Chamber Orchestra of Europe 녹음보다 3분 이상 길며, 그 차이가 작품에 더 큰 중량을 준다고 평했다. Harnoncourt의 판단은 미완성 이유를 확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두 악장판을 자립된 공연 단위로 읽은 지휘자의 관점이다.

Sir Charles Mackerras는 과거 Newbould의 Scherzo와 Rosamunde Entr'acte를 사용한 네 악장판을 연주했다. 그는 이후 Scottish Chamber Orchestra와 두 악장판을 녹음하면서 제 2악장의 종결 뒤에는 다른 음악이 설득력 있게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완판을 실제로 다룬 뒤 두 악장판으로 돌아온 선택이라는
점에서 Harnoncourt의 견해와 출발점이 다르다.

Claudio Abbado와 Chamber Orchestra of Europe의 Deutsche Grammophon 녹음은 1988년 Schubert 교향곡 프로젝트에 속한다. 이 전집은 1989년 Gramophone Orchestral Record of the Year를 받았으며, D 759는 Harnoncourt의 녹음보다 빠른 템포와 작은 관현악 규모로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Harnoncourt와 Berliner Philharmoniker의 녹음은 두 악장을 느린 템포와 긴 호흡으로 다룬다. 두 음반은 하나를 정답으로 고르기보다 , 같은 두 악장과 같은 편성에서도 템포 ·규모 ·프레이징의 선택이 공연 결과를 어떻게 달리하는지
비교할 수 있는 기록이다.

주요 자료

Werner Aderhold 편, Bärenreiter TP 407 서문 — Neue Schubert-Ausgabe 원전에 따른 작곡 ·
전승 ·편집 정보
Neue Schubert-Ausgabe V/3 — D 759 본편과 제 3악장 단편 ·Particellentwurf 수록 범위
Wiener Symphoniker — 두 악장명과 1865년 Großer Redoutensaal 초연 기록
The Morgan Library & Museum — C. A. Spina의 1867년 각인 초판 목록
Phillip Huscher, Chicago Symphony Orchestra — 자필 총보, Scherzo 단편과 초연 경위
The Cleveland Orchestra, Peter Laki — 편성 ·소요 시간 ·두 완성 악장의 범위
Berliner Philharmoniker Recordings — Nikolaus Harnoncourt의 Schubert 전집과 인터뷰 The Guardian — Harnoncourt의 두 악장판 해석과 Abbado 녹음의 템포 비교
Deutsche Grammophon — Claudio Abbado·Chamber Orchestra of Europe의 D 759 발매 정보
Brian Newbould, The Independent — Scherzo·피날레 보완 작업의 범위와 한계